

2021년 08월 29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35편 28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나의 허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35편 28절]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176장(통163)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다니엘 12장 1~13절(구약p.1255)

1.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5.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6.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7.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8.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10.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1.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천이백구십 일을 지낼 것이요
12. 기다려서 천삼백삼십오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 말씀선포 / 예비하신 축복

다니엘은 일찍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에서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니엘의 삶을 지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많은 우상숭배와 믿음의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함으로 마지막까지 힘썌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다니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본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에게 만만치 않은 참으로 고난과 시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눈물과 슬픔과 고난과 시련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고된 시련이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 주실 뿐 아니라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끝나는 날,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음도 예언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미래에 예비하신 복은 어떤 것들입니까?

1.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 본문 1절입니다.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고 했습니다. 예언의 마지막 부분은 이 세상의 종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큰 환난 속에서 죽고, 하나님의 성전이 모독당하는 참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시련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난이 닥쳐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장차 임할 구원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굳건히 걸어가야 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환상을 해석해 주던 천사는 다니엘을 향해 “너는 같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비록 고난이 있고 낙심됨이 있으며 우리에게 도전하는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당해야 할 믿음의 삶,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나라와 민족을 향한 거룩한 사명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 바로 우리들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사명이며, 세상 풍조와 거짓 신을 따라가는 불신자들을 옳은 데로 이끄는 사명입니다.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빛진 자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간절함이 종말의 때를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잠시 주어진 이 귀한 기회를 우리의 무관심과 게으름으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오래 참으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오래 참으시며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

복으로 참고 견디며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며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미 죽은 성도들은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 쇠퇴해 가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분투했던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또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분명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혹독한 환난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질병과 싸우면서 고통을 견뎌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분명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큰 기쁨과 위로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으로 성도는 장차 누리게 될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겪는 어려움을 인내해야 합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매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신앙의 선택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며 더욱 말씀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이 날까지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기쁘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에서 고난 속에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로마서 8장 17~18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180장(통168) 하나님의 나팔 소리

◎ 폐 회 / 주기도문